

# 시인과 역사:

## 푸슈킨의 역사인식에 대한 재고

김진영\*

### 1. '역사주의'에서 '신역사주의'로

“한 민족의 역사는 시인 몫이다(История народа принадлежит поэту)”라는 푸슈킨의 발언이야말로 과감한 것이었다. 1825년의 편지글에 등장했던 그 말은 다른 시인으로 하여금 영웅 서사시를 쓰도록 종용하던 끝에 나온 것이었지만,<sup>1)</sup> 이후 역사 서술에 몰두하게 되는 푸슈킨 자신의 문학 여정을 상기해 본다면, 오히려 예언에 가까운 선언이었다고 여겨진다.

19세기 초 유럽에서 발생했던 역사 및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학을 위시한 예술 분야 전반에 있어 역사적 소재가 중심을 이루게 되며, 1820-30년대에 걸쳐 스콧 류의 역사 소설이 러시아 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는 사실은 굳이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푸슈킨의 대표적인 역사물(『보리스 고두노프』, 『폴타바』, 『대위의 딸』, 『푸가 초프의 역사』 등)이 씌어졌고, 그러나 푸슈킨만의 작가적 특성이나 역사관에 의해 애초 스콧으로부터 흡수했던 스타일과 기법의 한계가 극복되었다는 일 반론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sup>2)</sup>

---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그네디치에게 보낸 1825년 2월 25일자 편지. А. С. Пушкин(1777-1979)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이하 ПСС), т. 10, л., с. 100. 이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번역은 인용자 자신의 것임.

2) 물론, Jurij Striedter(1977) "Poetic Genre and the Sense of History in Pushkin," *New Literary History*, Vol. 8, No. 2, Winter, pp. 295-309처럼 스콧의 영향이나 유행보다는 푸슈킨 자신의 역사관에 의해 그의 역사 소설 장르가 생성·진화되었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19세기 초 유럽의 역사 붐과 그것의 문학적 발현에 대해서는 Georg Lukacs(1963) *The Historical Novel*, Boston, pp. 19-88; Lionel Gossman(1990)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Cambridge, pp. 83-226 등 참조. 러시아 내에서의

푸슈킨 문학의 '역사주의'에 관해서는 그동안 러시아 내에서 꽤 많은 연구가 있어왔는데,<sup>3)</sup> 이는 무엇보다도 20세기 러시아를 지배한 실증적 사실주의와 사회주의적 경향성의 여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낭만주의 시대의 역사 붐이 격동적인 시대 상황, 그리고 단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불가피한 발생 요인을 납득해보려는 노력의 결과였듯이,<sup>4)</sup> 구소련의 인문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졌

---

윌터 스콧 수용사를 다룬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Л. Я. Левкович(1973) "Историческая повесть," Б. С. Мэйлах(ред.) *Русская повесть XIX в.: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атика жанра*, Л., сс. 108-34; Юрий Манн(1993) "Вальтер Скотт в русском эстетическом сознании," *Проблема автор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жевск, сс. 196-206; Марк Альтшуллер(1996) *Эпоха Вальтера Скотта в России*, СПб. 참조. 스콧 소설의 시학적 특성과 푸슈킨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모두 푸슈킨이 스콧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요컨대 스콧이 견지한 서술 시점상의 일관성을 패러디하거나(유리 만), 스콧의 약점을 보완하면서(알트슐레르), 푸슈킨은 스콧의 수법 위에 역사의식을 확립해 놓았다는 식이다.

- 3) 'историзм'을 '역사주의'라고 옮기기보다는 '역사의식' 또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편이 경우에 따라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푸슈킨 문학의 콘텍스트 속에서 'историзм'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보편적 차원의 역사 인식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특정 경향 또는 방법론적 원칙(시기적으로는 『보리스 고두노프』 이후, 경향면에서는 프랑스 역사관+사실주의)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의식'이라고 할 경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historicism'이 이미 '역사주의'로 번역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일이다. '역사주의' 및 '신역사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1967), Paul Edwards et als. eds., NY., IV, pp. 22-24; *Encyclopedia of Literature and Criticism*(1991), Marin Coyle et als. eds., London, pp. 791-805; David H. Richter ed.(1999), *The Critical Tradition: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Boston, pp. 1204-1221 등 참조. 푸슈킨의 '역사의식'을 다룬 주요 연구로는 С. М. Петров(1953) *Исторический роман А. С. Пушкина*, М.; Г. А. Гуковский(1957) *Пушкин и проблемы ре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иля*, М.; Б. Томашевский(1961) "Историзм Пушкина," *Пушкин*, М.-Л., т. II, сс. 154-199; И. М. Тойбин(1969) "Вопросы историзма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Пушкина 1830-х годов," *Пушкин: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атериалы*, 6, Л., сс. 35-59; Г. П. Макогоненко(1991) "Из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сторизм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зм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конец XVIII-начало XIX в.*(XVIII в., сб. 13), Л., сс. 3-65; Н. Я. Эйдельман(1984) *Пушкин: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поэта*, М. 등을 일차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의 주요 관련 자료는 Джи Ен Сим(2003) *Повесть А. С. Пушкина «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 движение истории и развитие характеров*, Дисс. канд. фил. наук, СПб.에 수록된 목록을 참조할 것.
- 4) 루카치는 19세기 역사 소설의 기원 배경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역사는 프랑스 혁

던 역사학적 방법론의 도입은 어찌 보면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학문적 근거 모색에 다름 아니었다.

푸슈킨의 역사철학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민중성’과 ‘반전제성’의 강조라던가 ‘객관적 사실성’에 대한 집착이 20세기 혁명 정신에 의해 조건 지어졌음을 추측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푸슈킨 연구사에서 정전으로 간주되었던 토마셰프스키의 관련 논문이 “푸슈킨의 사실주의는 진보적 인본주의, 민중성, 그리고 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sup>5)</sup>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음은 그 면에서 다분히 시사적이다. 푸슈킨의 역사주의가 고전주의 식의 단편적인 암시를 통한 현실 비판(система ‘применении, allusions’)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유추를 가능케 하는 낭만주의식 역사 재현(принцип исторических аналогий)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역사적 필연성의 법칙(закон историчес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에 입각한 사실주의로 이어진다는 그의 3단계 발전론 또한 실은 진화의 변증법과 혁명 논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토마셰프스키 이후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증법적 역사주의에 대한 기본 생각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 “1830년대의 푸슈킨은 ‘역사적 필연성의 법칙’을 신봉했으며, 역사를 ‘사회적 요소간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진보의 움직임’으로 보았다”는 견해에 소비에트 연구자들은 이견이 없었다.<sup>6)</sup> 일찍이 구조 시학과 문화학 연구에 몰두했던

명과 혁명전쟁들, 그리고 나폴레옹의 흥망성쇠에 의해 최초로 ‘집단적 경험’이 되어 버렸다”고 단언했다. “투쟁의 사회적 취지, 역사적 전제조건과 상황을 밝히”면서, 결국 “인간의 삶이란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임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프로파간다 수단’으로서의 역사 인식이 생겨났다고 그는 해석하는데 (Lukacs(1963), pp. 19-29), 그와 같은 견해는 당연히 이후 소비에트 연구자들의 역사주의 비평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

5) Томашевский(1961), с. 154.

6) Alexander Dolinin(1999) "Historicism or Providentialism? Pushkin's History of Pugachev in the Context of French Romantic Historiography," *Slavic Review*, Vol. 58, No. 2(Summer), p. 292. 한편, 에트킨드는 푸슈킨 수용의 변천사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역사의식이 ‘해빙기’ 이후부터 약화되고, 대신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구조주의적 분석과 순수 문헌학적 고증이 주요 방법론으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변화를 공식적인 ‘역사주의 원칙(принцип историзма)’에 대한 실질적 거부의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E. H. Эткиндр(1999) "Слева направо," *Божественный глагол: Пушкин, прочитанный в России и во Франции*, М, сс. 455-482.

로트만, 고문서 연구자들, 그리고 에트킨드나 시나프스키같은 망명 학자들을 제외한다면 제도적 사상의 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곧 자신의 역사의식에 대한 변호였을 수도 있다. 그들이 ‘역사적 필연성의 법칙’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던 푸슈킨의 역사관은 한편으론 자신의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부이기도 했던 것이다.

푸슈킨의 역사의식을 둘러싸고 보다 유연한 견해가 대두되는 것은 대략 1980-1990년대에 이르러서로, 러시아의 경우 체제 변환과 직결되고, 영어권 학계의 경우에는 필경 후기 구조주의 및 신역사주의 연구의 정착과 연관성을 갖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푸슈킨의 후기 역사 철학은 결코 ‘역사적 필연성의 법칙’에 입각한 낭만주의적 역사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에서부터<sup>7)</sup> 푸슈킨의 숙명론이 과거의 연구자들에 의해 역사주의와 사실주의로 오인되어왔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sup>8)</sup> 근래의 연구는 대부분 소비에트 사관의 고정관념을 수정하는데 몰두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후기 구조주의와 신역사주의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영어권 논의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담론에 대한 관심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는 재구성되고 재경험되고 심지어 위조된, 다시 말해 주관적인 목소리로 이야기된 과거에 불과할 뿐이라는 단정 앞에서 지나간 날의 객관적 사실성은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대신 초점은 역사를 구성해내는 상상력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다양한 조건들에 맞춰진다. 더불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일견 역설적인 표현도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sup>9)</sup> 『푸슈킨의 역사적 상상력』이란 제목의 최근 연구서가 다시 한 번 증거해주듯 말이다.<sup>10)</sup>

역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가다머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 과거와 현재 관점이라는 “지평의 혼합(fusion of horizons)”<sup>11)</sup>

7) Alexander Dolinin(1999) "Historicism or Providentialism? Pushkin's History of Pugachev in the Context of French Romantic Historiography," p. 292.

8) С. А. Кибальник(1998)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философия Пушкина*, СПб., с. 142.

9) 신역사주의 이론가인 Hayden White의 책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Baltimore, 1973)을 상기하자.

10) Svetlana Evdokimova(1999) *Pushkin's Historical Imagination*, New Haven. 제목이 예견해주듯, 예브도키모바의 연구는 신역사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푸슈킨의 역사쓰기를 분석하고 있다.

11) Hans-Georg Gadamer(1988) *Truth and Method*, NY., p. 273-4; H. Lindenberger (1990) *The History in Literature*, NY., p. 17에서 재인용.

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허구라는 문제가 오늘에 와서야 처음 제기된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 불가피한 허구성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다.<sup>12)</sup> 후기 구조주의나 신역사주의의 입장에서 역사 서술의 허위성은 단순 비판되지 않으며, 대신 객관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또 변호된다. 시대 상황, 힘의 논리, 유행이나 규범 등에 의해 형성되고, 그래서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담론의 한 측면인 허구성은 비사실의 지표이기보다 유동적 진실의 단서일 따름이다. 푸코가 말한 '에피스테메(episteme)'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실이란 없는 만큼, 역사 서술 역시 당연히 그 변동성의 숙명 안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절대적 진실, 절대적 언어란 없다.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붕괴되고, 역사보다는 차라리 '메타역사'를 논하는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그 맥락에서이다.

그런 이유로 푸슈킨의 역사 서술은 문학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상상력이나 시학, 신화 만들기의 차원에서 새롭게 읽혀지는 것이고, 근래의 연구물들이 바로 그 경향을 말해준다. 예컨대 역사가 서술 장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에머슨의 『보리스 고두노프』 분석,<sup>13)</sup> 또는 그와 반대로 역사 인식의 변화가 서술자의 정체 및 서술 형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장르론,<sup>14)</sup> 역사적 진실과 시적 진실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일련의 비교 연구<sup>15)</sup> 등은 모두 순수 문학 작품이나 아니냐의 구분을 떠나 담론의 속성과 구조를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은 후 그 속에서 생성되고 진화된 러시아 역사를 해부해보려는 시도이다. 역사 자체를 담론의 역사로 해석하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푸슈킨의 '역사철학'이 아니라 '예술철학'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안에 '진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과거의 역사주의자들이 신봉했던 단일한 객관성의 진실은 아닐 터이다.

12) 이는 가령, 회고적 서술이 안고 있는 "허위의 불가피성(необходимость лжи)"을 역사쓰기의 태생적 오류로 지목했던 톨스토이의 태도와 상반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를 통해 보여준 톨스토이의 '메타역사'론은 푸슈킨의 역사론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비교 연구의 가치가 크다.

13) Caryl Emerson(1986) *Boris Godunov: Transpositions of a Russian Theme*, Bloomington.

14) Striedter(1977) 참조.

15) Andrew Wachtel(1994) *An Obsession with History: Russian Writers Confront the Past*, Stanford, pp. 66-87; Давид Бетеа(1996) "Славянское дарение, поэт в истории и 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 Пушкина," *Автор и текст*, СПб., сс. 132-49; Dan Ungurianu(1998) "Fact and Fiction in the Romantic Historical Novel," *Russian Review*, Vol. 57, No. 3 (July), pp. 380-93; Evdokimova(1999) 참조.

신역사주의 비평의 기본 입장을 소개하는 글에서 그린블랫은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과거의 역사주의에는 일원적인(monological) 경향이 있다. 즉, 식자층 전체, 심지어는 인구 전체가 공유한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유일무이의 정치적 시각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 말이다. [...] 흔히 조리 있는 일관성을 생래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상상하는 -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융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 그 시각이 바로 역사적 사실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sup>16)</sup>

신역사주의의 목소리를 빌려 말해보건대, “생래적으로 조리 있고 일관성 있는 (inherently coherent and consistent)” 역사적 사실이란 없다. 오직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려는 욕구만이 일관될 뿐이다. 러시아 역사를 다루는 푸슈킨에게도 그 욕구는 있었고, 푸슈킨을 바라보는 소비에트 역사주의자가 그랬듯, 오늘날 푸슈킨과 과거의 역사주의자 모두를 바라보는 신역사주의 비평가 역시 그 욕구를 품고 있다. 단, 그것이 구심력이 아닌 원심력의 욕구라는 점, 일원적이지 아니라 다원적이라는 점, 그리고 대단히 자의식적이란 점에서 후자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역사는 시인 몫이다”라는 푸슈킨의 말은 어떤 관점을 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애초 표면적으로 볼 때 그 말은 소재로서의 인물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좀 더 넓혀서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서사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되지 않은 스바토슬라브의 혼이 떠돌고 있다”고 당신이 언젠가 쓰지 않았습니까. 블라디미르는? 그리고 또 므스티슬라브는? 돈스코이는? 예르마크는? 포자르스키는 또 어떻습니까? 한 민족의 역사는 시인 몫입니다.<sup>17)</sup>

역사주의 관점에서의 역점은 아마도 ‘민족의 역사’란 주어에 떨어질 것이다. 영웅적 인물 개개인의 역사를 넘어 ‘민족/민중(народ)’ 전체의 역사로 확장된 그 역점의 파장은, 더 나아가 낭만주의자들의 관심사였던 ‘지방색’과 함께 지방색의 보유체인 ‘민중성’ 개념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같은 시기

16) Stephen Greenblatt(2001) "Introduction to The Power of Forms in the English Renaissance," V. B. Leitch(ed.) *The Norton Anthology of Theory and Criticism*, NY., p. 2253-4.

17) Пушкин, ПСС, т. 10, с. 100.

에 쓴 한 초고에서 푸슈킨은 시를 민족/민중 고유의 지방색이 비쳐지는 거울로 비유한 바 있다.

작가에게 있어 민족성(народность)은 오직 자국민들만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덕목일 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심지어 단점으로 여겨질 여지조차 있다. [...] 각각의 민족은 기후나 통치 방식, 신앙 등에 의해 독특한 외형적 성질을 띠게 되고, 그것은 대체로 시의 거울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민족에게는 그 민족만이 갖는 사고방식과 감정의 방식, 수많은 풍습과 믿음과 습관들이 있다.<sup>18)</sup>

민중 고유의 민족성 외에도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감정의 진실성, 그리고 느낌의 개연성(истина страстей, правдоподобие чувствований в предполагаем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을 통해 “지나간 시대를 진실 그대로 되살려낸다(воскресить минувший век во всей его истине)”는 것이 푸슈킨의 민중역사극론이었다.<sup>19)</sup> 역사의 진실성은 시인이 그려낸 시대상의 사실성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시의 진실이 곧 역사의 진실인 셈이다. 역사는 단순히 시인의 소재로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시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역사는 시인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푸슈킨은 카람진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처럼, 고대 러시아를 발견한”<sup>20)</sup> 시인-역사가로 평가했던 것이다.

시인과 역사가가 겹쳐지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역사주의와 신역사주의가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한다. 전자의 관심이 역사가로서 시인의 시인에 있다면, 후자는 시인으로서의 역사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시인이 발굴해내는 역사의 진실성에 대해 전자는 회의하지 않는 반면, 후자는 바로 그 사실에 도전장을 던지기 때문이다.

## 2. 「폴타바」

푸슈킨 자신은 역사 서술에 있어 주관성의 요인을 배제한 적이 없다. 문학

18) Пушкин, “О народности в литературе,” ПСС, т. 7, с. 28-9. 편집자들에 의해 ‘문학의 민족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초고는 푸슈킨 사후(1855년) 발표되었다.

19) Пушкин, “О народной драме и драме *Марфа Посадница*”(1830), ПСС, т. 7, сс. 147-51.

20) Пушкин, “Воспоминания”(1835), ПСС, т. 8, с. 49.

적 역사물인 경우 작가의 주관성은 무엇보다 상상력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다. 푸슈킨이 말하는 역사극의 사실성은 “예상되는 상황”하에서의 개연성으로, 두 말 할 나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원칙을 연상시킨다.<sup>21)</sup> 역사 소설 또한 ‘역사적인 시대’와 ‘상상의 이야기’가 조합된 것으로,<sup>22)</sup> “소설적 사건은 역사적 사건의 거대한 틀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된다.”<sup>23)</sup> 역사 서사시도 마찬가지로, 「폴타바」(Полтава, 1828)의 마제파가 “역사 속 인물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푸슈킨의 근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다지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포트르 대제와 스웨덴 왕, 칼 XII의 대접전(1704-1708)을 다룬 장시 「폴타바」에 쏟아진 비평가들의 혹평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쳐 보인다.

첫째, 비평가들은 여자가 늙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자고로 본적이 없고, 따라서 늙은 헤트만[코자크족 대장]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NB: 역사적 고증)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 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체스톤? 알라도 믿지 않겠다”는 식이다.

그 설명에는 수긍할 수가 없다. 사랑이야말로 더 할 나위 없이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던가. 난 지금 일상적으로 젊음, 좋은 머리, 아름다움보다 더 선호되는 추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화 속의 전설들과 오비디우스의 변신들, 레다, 필리라, 파시파에, 피그말리온을 기억한다면, 그와 같은 허구들이 전혀 시의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항해와 전투 이야기로 데즈테모나를 매료시킨 늙은 검둥이 오렐로를 보라. 이태리 시인[알피에리]에게 최고의 비극을 쓰게 만든 뮌라를 보라.

그들은 또 마리아(또는 마트료나)는 사랑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허영심에 이끌렸던 것이라고 했다. 마치 최고 판사의 딸로서 게트만의 정부가 되는 것이 대단한 영예이더라도 한 듯 말이다! 그들은 나의 마제파가 “사악하고 멍청한 영감탱이”라고도 비난했다. 내가 마제파를 사악하게 그려놓은 점만큼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내겐 추호도 없다.

21)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도 제시해주는 까닭에 시인이 역사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IX장.

22) “В наше время под словом роман разумею историческую эпоху, развитую в вымышленном повествовании.” Пушкин, “Юрий Милославский, или русские в 1612 году”(1830), ПСС, т. 7, с. 72.

23) “Романическое происшествие без насилия входит в раму обширнейшую происшеств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ушкин, “Юрий Милославский, или русские в 1612 году”(1830), ПСС, т. 7, с. 73.



자신이 유혹한 처녀의 아버지를 처형하는 순간엔 특히나 그렇다. 그 인간의 멍청함은 행동이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인가 본데, 내 장시에 나오는 마제파는 역사 속 인물과 똑같이 행동하며, 언변 또한 그의 역사적 성격을 말해준다. 비평가들은 나의 마제파가 지나치게 원한에 사무쳐 있다, 소러시아의 통치자는 학생이 아니다, 따라서 따귀를 때리거나 콧수염을 잡아당긴 것 따위로 복수할 사람은 아니라고들 지적했다. 이 또한 문학 비평에 의해 왜곡되는 역사의 예일 것이다. 여전히 “알아도 믿지 않겠다”는 식이다. 마제파로 말하자면 당시 귀족적 명예 의식이 극에 달해 있던 유럽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모스크바의 차르가 가한 모욕을 두고두고 기억하다가 기회가 주어진 순간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거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한결같고 잔인한 그의 성격이 전부 들어 있다. 폴란드인이나 카자크인의 콧수염을 잡아당기는 일은 러시아인의 턱수염을 움켜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차플리츠키(Чаплицкий)로부터 온갖 모욕을 겪었던 호멜니츠키(Хмельницкий)가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의 판결에 의해 손에 넣은 보상은 바로 차플리츠키의 잘라낸 콧수염이 아니었던가 말이다(코니스키 연대기 참조).<sup>24)</sup>

작품의 비사실성 비판에 맞서는 푸슈킨의 반격 도구는 역사적 사실성과 보편적 개연성 둘 다이다. 늙은 마제파를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나 콧수염에 대한 특정 민족의 감정은 고증된 것인데다가(역사적 사실성), 비이성적인 사랑의 감정, 상처받은 명예에 수반되는 복수 심리 또한 진리에 가까운 일반론인 만큼(보편적 개연성), 비평가들의 지적에는 역사적 근거와 논리력 모두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변론이며, “문학 비평에 의해 왜곡되는 역사”를 지탄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문학이 확보한 역사적 진실성을 자신한다.

그러나 푸슈킨에게 쏟아진 비평의 부당함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의 변론에 담긴 작위성마저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개연성에 대한 비판에는 역사성으로, 역사성에 대한 비판에는 개연성으로 푸슈킨은 맞선다. 젊은 여자가 늙은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논리에는 역사적 고증을, 콧수염을 잡아당겼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는 논리에는 연대기 기록을, 그리고 마제파의 불확실한 배반 동기에는 복수심에 찬 폴란드인 호멜니츠키의 예를 들면서 방어하는 식이다. 그는 인물의 행동과 언변이 보여주는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 부각시킨 인물의 사악한 성격 또한 인정한다. 마리아의 사랑이 역사적으로는 물론 오랜 신화적-시적 전통을 통해 고증되었음도 밝힌다.

객관성을 표방한 푸슈킨의 반론은 사실 어찌 보면 시적 주관성의 변호에

24) Пушкин, “Опровержение на критики”(1830), ПСС, т. 7, с. 132-3.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푸슈킨의 반론 근거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전설 모두에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관된 역사성도, 또 일관된 개연성도 없다. 푸슈킨의 항변과는 모순되게 「폴타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은 비평가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진 바로, 가령 마리아의 본명이 마트료나이고, 그녀는 외동딸이 아니며, 마리아-마제파 관계의 본말도 실제와는 다르고, 마제파와 콧수염 사건은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예이다.<sup>25)</sup> 다분히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마제파의 형상이 “사악하고 멍청한 영감탱이”로 굳혀졌음도 작가가 인정한 대로이다.

그런대도 푸슈킨이 자신의 마제파만을 유독 역사적 진실인 양 선언하고 있음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르일레예프의 서사시 「보이나로프스키 Войнаровский」(1825), 알라드인(Е. Аладьин)의 소설 「코츠크베이Кочубей」(1828), 볼테르의 『칼 12세의 역사Histoire de Charles XII』(1772),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바이런의 「마제파Mazeppa」(1818) 등, 기존 작가들의 낭만적 문학 작품과 역사 서술은 모두 푸슈킨에게 불충분한 고증과 왜곡의 실례로서 비쳐진다.

마제파는 당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작가들 중에는 그를 자유의 영웅으로, 즉 또 하나의 보그단 호멜니츠키로 그려내고자 했던 사람도 있다. 역사에 나오는 그는 간교함과 사악함이 피에 흐르는 야심가로서, 은인이었던 사모일로비치를 비방하고, 가엾은 정부의 아버지를 죽이고, 표트르 대제가 승리하기 전에는 그를 배반했다가, 칼 왕이 패배하자 이번엔 또 그를 배반하는 인물이다. 그는 길이길이 정교회의 파문은 물론 전 인류의 저주를 모면할 수 없으리라.

또 어떤 낭만적인 소설에서는 마제파가 무기를 손에 든 여자 앞에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프랑스 멜로드라마 류에나 어울리게 바들바들 떠는 늙은 겁쟁이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반란자 헤트만의 성격을 풀어나가고 설명하는데 있어 역사적 인물을 제멋대로 왜곡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sup>26)</sup>

「폴타바」의 서문격인 이 글은 푸슈킨의 서사시가 피하고 있는 목적, 즉 문학을 통한 ‘역사바로잡기’라는 의도의 표명에 다름 아니다. 푸슈킨이 지적하고

25) 실제로 마리아가 코츠크베이의 여러 딸들 중 한 명인 마트료나임은 푸슈킨이 작품 뒤에 붙인 주석에 밝혀져 있다. 그 외에도 「폴타바」에 드러난 역사 왜곡 및 그 동기(정치적 선악과 개인의 윤리적 선악 대비)가 되는 푸슈킨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Evdokimova(1999), pp. 173-208 참조.

26) Пушкин, "Предисловие к первому изданию Полтавы"(1829), ПСС, т. 4, с. 386-7.

있는 역사 왜곡이 마제파에 대한 낭만적 형상화가 가져온 오류인 만큼, 그의 「폴타바」가 시적으로는 탈낭만주의를 지향할 것이며, 그것이 결국 충실한 역사 재현으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가설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역사인가”라는데 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본 ‘역사바로잡기’인가,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근본 동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푸슈킨의 서문 초고에 언급된 ‘역사’는 폴타바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역사이다. 패배한 우크라이나와 스웨덴, 그리고 ‘반란자’ 마제파의 자리는 당연히 거기에 없다. 참고로 푸슈킨과 달리 마제파를 우크라이나 독립투사로 묘사한 르일레예프의 낭만적 서사시에는 ‘마제파의 생애’에 대한 코르닐로비치(A. O. Корнилович)의 글이 앞부분에 인용되어 있다. 마제파의 간계와 비열함을 강조 하면서 그의 반란이 결코 순수한 조국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공식 입장의 문헌이 삽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국의 검열 때문이었다. 코르닐로비치의 제도권 역사 서술은 이어지는 서사시의 허구적 낭만성을 드러내면서 문학 앞에 선 역사의 권위를 재천명하는데,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보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데올로기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그 삽입 문헌은 ‘12월당’ 시인 르일레예프의 알리바이였던 셈이다.

독자들은 혹 시인이 그려놓은 마제파와 역사가가 묘사하는 마제파의 인물 성격이 상반되는데 대해서 놀라워할 지도 모른다. 굳이 설명하자면, 시에서는 마제파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그것도 최고의 색깔로, 그려내는 반면, 가차 없는 후대와 공정한 역사가는 그를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과연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오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설득의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조카인 보이나로프스키를 자기편으로 이끌기 위해 미사여구로 꼬드기고는, 그의 순진함을 이용해 표트르 대제와의 전쟁에 끌어들었다. 그러나 승리는 진실의 편이어서, 배반자는 하늘의 별을 받고 말았다.<sup>27)</sup>

르일레예프의 서문은 이처럼 러시아의 “공정한” 역사관을 재차 반복한다. 그것은 자신의 서사시가 갖는 역사성 자체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승리는 진실의 편이어서, 배반자는 하늘의 별을 받았다(Но истина востор-

27) 르일레예프의 「보이나로프스키」 서문 전문. К. Ф. Рылеев(1971)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й*, Л., с. 434.

жествовала, и провидение наказало изменника)”라는 르일레예프의 말에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읽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신이 자유사상의 시인이었고, 그로 인해 1년도 채 못돼 교수형을 당하게 될 운명의 르일레예프에게는 그 말이 지독한 역설이자 예언에 불과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푸슈킨의 「폴타바」 서문도 마제파를 러시아의 적으로 지명하기는 마찬가지로이며, 부분적으로는 코르닐로비치의 서술을 그대로 되풀이하기조차 한다.<sup>28)</sup> 하지만 아이러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푸슈킨이 전제로 하고 있는 역사란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역사로서, 러시아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서문의 첫 문장을 비롯해 서사시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브이다.

폴타바 전쟁은 표트르 대제 재위 기간 일어났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경사스러운 사건 중 하나이다. 그 전쟁을 통해 가장 위험한 적을 제거했음은 물론, 남쪽 지방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북방 지역에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표트르 대제가 완성시킨 개혁의 불가피함과 성공도를 입증했기 때문이다.<sup>29)</sup>

운명의 전쟁터에서/ 천둥이 치고, 여기저기 불길 이 인다./ 그러나 전운은 이미/ 우리 쪽에 기울기 시작했다./ 연속 표격을 당한 병정들이/ 서로 뒤엉켜 먼지처럼 나가떨어진다./ (...)/ 전쟁 신의 은총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준다./ 그 때 하늘의 영감을 받은/ 표트르 대제의 우렁찬 목소리가 퍼져 나왔다./ “나가자, 신의 은총과 함께!” 추종자의/ 무리에 에워싸인 표트르 대제가/ 천막에서 나타났다. 빛나는/ 눈, 무서운 얼굴/ 민첩한 거동. 그는 눈부시도다./ 그 자신 흡사 신의 분노로구나.<sup>30)</sup>

표트르 대제의 참전과 신의 응징과의 비유, 그리고 러시아의 승리와 신의(神意)와의 동일시가 보여주듯, 절대군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폴타바」의 역사관은 일관된 것이며, 그 일관성은 「폴타바」의 성격을 낭만적 서사시보다 고전적 영웅 송시의 범주로 규정짓게 만드는 근거이기도 하다.<sup>31)</sup> 푸

28) “마제파는 당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한 명이다”(푸슈킨의 서문) vs. “마제파는 18세기 러시아 역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에 속한다”(코르닐로비치의 역사 서술 첫 문장). 그 외에도 푸슈킨이 그려 놓은 마제파의 성격과 관련 일화들은 코르닐로비치의 그것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29) Пушкин, ПСС, т. 4, с. 386.

30) Пушкин, ПСС, т. 4, с. 213.

슈킨의 창작 의도는 “왜 칼이나 마제파가 아닌 표트르 대제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어야만 하는가”<sup>32)</sup>라는 역사적 필연성의 명제를 다각도로 증명해주는 데 있었다는 비교적 일치된 의견 속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롭게 대두되는 것이 푸슈킨 자신도 언급한 바 있는 에피그라프의 문제이다. 바이런의 서사시 「마제파」 앞부분에서 따온 영문 에피그라프는 다음과 같다.

The power and glory of the war,  
Faithless as their vain votaries, men,  
Had pass'd to the triumphant Czar.

푸슈킨이 이 대목을 통해 피터 대제를 승리로 이끈 전쟁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했으며, 그런 이유에서 서사시의 제목 또한 ‘폴타바’로 삼았다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sup>33)</sup> 그것은 조금 성급한 해석일 수 있다. 제목의 선정 배경에 대해 푸슈킨은 이렇게 설명한다.

『유럽 통신』은 내 서사시의 제목이 잘못된 것이며, 아마도 바이런이 연상될까봐 ‘마제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에피그라프에 있다. 「바흐치사라이의 분수」 역시 원고에는 ‘하렘’이라고 했었으나, 그만 멜랑콜리한 에피그라프(물론 내 서사시 전부를 합한 것보다도 더 나은)에 끌린 나머지 그렇게 되고 말았다.<sup>34)</sup>

푸슈킨이 사디(Sadi)의 시에 나오는 ‘분수’에 이끌려 서사시의 제목을 바꾼 것이라면, ‘폴타바’는 바이런의 ‘전쟁’이란 단어로 인해 등장한 셈이다. ‘분수’가 하렘의 메토니미인 것과 같이, ‘전쟁’ 또한 러시아의 영광을 가리키는 메토니미이자 표징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힘과 영광은 표트르 대제의 승리로 귀결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의 헛된 숭배자인 인간처럼 신의 없는(Faithless as their vain votaries, men)” 것으로 정의되고 만다. 만약 푸슈킨이 차르의 위력과 영광만을 강조하려 했다면, 문제의 두 번째 행은 생략될 수 있었을 것이

31) Кибальник(1998), сс. 141-149; Evdokimova(1999), pp. 173-208.

32) И. З. Серман(1971)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и композиция поэмы Полтава,” А. С. Пушкин. Статьи и материалы, Горький, с. 28; Кибальник(1998), с. 142에서 재인용.

33) Evdokimova(1999), p. 176-7.

34) Пушкин, “Опровержение на критики”(1830), ПСС, т. 7, с. 133.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결과에 앞서 승리의 변덕스러운 속성을 폭로하는 그 한 줄을 푸슈킨은 여전히 남겨두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한다.<sup>35)</sup>

비록 폴타바 전쟁의 승리는 신의 뜻에 따라 러시아 차르에게 넘어갔지만, 인간의 힘과 영광에 지워진 무상함과 유한성의 한계는, 마치 변덕스런 신에 의해 어느 때고 뒤바뀔 수 있는 전운처럼, 국가적 운명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다. 러시아가 누리게 된 오늘의 영광이 역사의 현재적 사실이라면, 인간이 기억해야 할 역사의 영원한 진실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폴타바」의 에필로그가 각인시키는 교훈이기도 하다. 에필로그는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백년 후 운명을 기억의 단층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본문이 재현하는 전쟁의 실재가 역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에필로그가 지정하는 기억의 위계질서 또한 역사일 것이다. 실제로 총 47행에 불과한 이 역사의 공간은 몇 년 동안의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본문 전체보다도 훨씬 장구한 역사를 다루면서, 시와 언어로써 이어지는 기억의 힘을 강조해준다.

백년이 지났다. 열정의 자유로 가득 찼던/ 강인하고 당당한 용사들, 그들이/ 남겨놓은 건 무엇이던가?/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느니,/ 그들의 전력과  
고난과 승리의/ 피 어린 흔적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노라./ 오직 폴타바의 영  
웅인 그대만이/ 북쪽 대국의 백성들/ 그들의 전투적인 운명 속에/ **거대한 기**  
**념비를** 세워놓았다./ 날개달린 풍차들이 즐지어/ 벤데라의 황량한 언덕을/ 평

35) 바이런의 서사시는 “triumphant Czar” 다음을 맞춤표로 끝맺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다. “The power and glory of the war,/ Faithless as their vain votaries, men,/ Had pass’d to the triumphant Czar,/ And Moscow’s walls were safe again,/ Until a day more dark and drear,/ And a more memorable year/ Should give to slaughter and to shame/ A mightier host and haughtier name:/ A greater wreck, a deeper fall,/ A shock to one - a thunderbolt to all./ Such was the hazard of the die...” Byron(1986), Oxford, pp. 345-346. ‘주사위 놀이(the hazard of the die)’의 비유가 말해주듯, 바이런은 러시아의 승리를 일순의 영광으로 간주하면서, 주사위의 회전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승패와, 따라서 언젠가 뒤바뀌게 되어 있는 러시아의 운명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슈킨의 「폴타바」를 그와 같은 바이런의 반러시아적 서사시에 대한 반론으로 읽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다. 예컨대, 푸슈킨이 “triumphant Czar” 다음에 맞춤표를 찍어 인용함으로써 러시아의 승리를 불변의 것으로 확정지었다던가, 또는 ‘주사위 놀이’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승패의 변동이 왜 표트르 대체의 승리에 와서는 고정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자신의 시로써 직접 보여주었다는 식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화로운 담장처럼 둘러싸고/ 뿔 달린 물소들은/ 병사들의 무덤가를 어슬렁거리  
는 그 나라엔/ 무너져 내린 건물의 **폐허**와/ 이끼 낀 채 땅 속 깊이/ 파묻혀버  
린 **세 개의 계단**만이/ 스웨덴의 왕에 대해 말하는구나./ 그곳에서 자신들만  
거느린/ 어리석은 그 영웅은 홀로/ 터키 군대의 요란한 습격을 막아내다가/ 그  
들의 권표 아래 칼을 내던졌었다./ 그러나 우울한 나그네여, 그곳에서/ 헤트만  
의 무덤은 결코 찾지 못하리./ 마제파는 잊혀진 지 오래./ 여태도록 일 년에 한  
번씩/ 성당의 장엄한 성전에서/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두  
수난자의 유해가 잠든/ 무덤은 남아 있다./ 성당 안 옛 성자들의 무덤들 사이  
에/ 고히 잠들이 있다./ 디칸카에는 오랜 전 벚꽃이 심었던/ 딱딱나무 몇 그  
루가 무성히 자라/ 아직까지도 후손들에게/ 처형당한 조상의 이야기를 전해준  
다./ 그러나 죄 많은 딸... 그녀에 대해서는/ 전설도 침묵한다. 그녀의 고통과/ 그  
녀의 운명과, 그녀의 종말은/ 암흑에 가리어져/ 알 길이 없구나. 다만 때때로/ 마  
을 사람들 앞에서/ 헤트만의 노래를 하던/ 눈 먼 우크라이나 시인이/ 어린 카자  
크 소녀들에게/ 죄 많은 처녀의 이야기를 잠깐씩 전해줄 뿐.<sup>36)</sup>

에필로그가 기록하는 기억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그것의 실체와 생성과정  
에 대한 역사이다. 포트르 대제의 업적은 “거대한 기념비(огромный памятник)”  
에 의해 기억되지만, 죄 많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직 눈 먼 시인의 노래를  
통해 전해질 따름이다. 기억의 강도나 매개체의 공신력, 그리고 그 전파성 등  
은 모두 인물의 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오르내리기 마련으로, 역사적 중요도는  
또 역사를 바라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결정됨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  
트르 대제와 칼 왕을 각각 거대한 기념비와 폐허로써, 배반자 마제파와 충신  
코추베이, 이스크라를 정교회의 저주와 칭송으로써 대칭 기억되게끔 설정한  
에필로그야말로 승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러시아인 푸슈킨의 공적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에필로그에 나타난 기억의 층위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해부해 볼 수  
도 있는 문제이다. 공적 기억의 층위는 거대한 기념비에서 지나쳐가는 노래  
로, 러시아 제국에서 속국 우크라이나로 하강하며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나,<sup>37)</sup>  
비공식적인 기억의 층위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포트르 대제의  
손으로 세워진 기념비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저주(anathema)로, 비문으로, 마  
침내 시인의 시로 이동하는 기억은 매우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36) Пушкин, ПСС, т. 4, с. 220 (인용자 강조).

37) 에필로그에 나타난 기억의 하강 구조에 관해서는 Evdokimova(1999), p. 200-4가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히 지속된다. 승리한 집단에게는 제도와 물질의 역사가 있고, 반대로 그 역사가 외면하는 패자에겐 시의 역사가 있다. 두 가지의 기억 모두, 즉 역사가 기록하는 전쟁의 이야기와 시가 기록하는 사랑의 이야기, 승리하는 집단의 경험과 패배하는 개인의 경험 모두가 푸슈킨의 서사시를 구성하는 사건이며, 에필로그는 백년이란 세월을 뛰어 넘겨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후기의 푸슈킨이 국가관이나 사회의식, 심지어 문학 원칙에 있어서까지 진보보다는 차라리 보수의 성향에 다가섰다는 견해가 제시된 지는 오래이나,<sup>38)</sup> 그와 더불어 전제되어야 할 점은, 그것이 진보성이 되었건 보수성이 되었건, 푸슈킨의 논리가 언제나 단순한 흑백 논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폴타바』가 승리한 집단과 패배한 개인 모두의 기억을 기리고 있듯, 또 같은 시기에 쓴 「1829년 원정시의 아르즈룸 여행」(Путешествие в Арзрум во время похода 1829 года)이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노래함과 더불어 사라진 카프카즈를 애도하면서 카프카즈 원주민의 야만성과 러시아의 폭력성을 동시에 폭로하듯이, 그리고 『보리스 고두노프』가 보리스 고두노프와 가짜 드미트리와 민중 모두에게 역사적 책임의 소재를 두고 있듯이, 또한 『대위의 딸』이 귀족과 농민 계층의 뒤섞인 관점으로 푸가초프를 바라보듯이, 푸슈킨이 견지한 관점에는 항상 단면성이 아닌 다면성의 원칙이 존재한다.

### 3. 『대위의 딸』과 『푸가초프의 역사』

푸슈킨의 역사관에 있어서 때로 자기 모순적인 입장과 주장이 교차되는 것은 그와 같은 다면성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양면성이기보다는 분명 다면성이다. 흑자는 “양성의 사상적-문체적 층위(два идейно-стилистических пласта)”라

38) 푸슈킨의 남성적 지배욕과 제국주의적 정복욕에 대해서는 Stephanie Sandler (1989) *Distant Pleasures: Alexander Pushkin and the Writing of Exile*, Stanford; Katya Hokanson(1994) "Literary Imperialism, Norodnost' and Pushkin's Invention of the Caucasus," *The Russian Review*, Vol. 53, No. 3 (July), pp. 336-52; Monika Greenleaf(1994) *Pushkin and Romantic Fashion*, Stanford 참조. 푸슈킨의 문학적 의고주의(archaism)에 대해서는 Ю. М. Лотман(1983) *Роман А. С. Пушкина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Комментарии*, Л., с. 307; В. Вацуро(1994) "Повести покойного Ивана Петровича Белкина," *Записки комментатора*, СПб., сс. 29-47; Dolinin(1999), p. 291.



일컫고,<sup>39)</sup> 혹자는 “양가적 진실(двоеправдие)”이라 일컫는 방식으로<sup>40)</sup> 시인-역사가 푸슈킨이 직면해야 했던 예술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또는 실제와 상상력의 충돌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것은 소설과 역사라는 두 장르로 동일한 소재를 거의 동시에 소화해낸 한 쌍의 역사물, 즉 『대위의 딸』과 『푸가초프의 역사』의 비교에 임해서는 특별히 부각되는 문제로, 따라서 그 두 작품이야말로 시인과 역사가로서의 이중 과제를 가장 극명히 반영하는 예인 양 어김없이 거론되곤 한다.

소설로 쓰는 역사와 역사로 쓰는 역사 - 이 두 작업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있어 슈클로프스키보다 더 간명할 수는 없을 듯싶다. “소설에서는 『역사』에서 쓴 것을 쓰지 않고, 『역사』에서는 『대위의 딸』에서 쓴 것을 쓰지 않았다”는,<sup>41)</sup>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까운 한 문장이 전부이니 말이다. 평소 시인의 직감을 통해 작품 분석에 관한 한 그 어떤 연구자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줬던 츠베타예바 역시, 강렬한 대조의 수사법이 강조하듯, 시인과 역사가를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틀로부터 결코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

『대위의 딸』의 푸가초프와 『푸가초프 난의 역사』의 푸가초프.

같은 손으로 썼으니, 같은 푸가초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손이 아니었다. 『대위의 딸』의 푸가초프를 쓴 것은 시인이었고, 『푸가초프 난의 역사』의 푸가초프를 쓴 것은 역사가였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같은 푸가초프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

푸슈킨의 푸가초프는 역사적인 푸가초프에 대한 시인의 반격이요, 사료(архив)에 대한 서정시인의 반격이다. “그래 안다, 다 알고 있다. 실제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실재를 안다. 푸가초프가 저열하고 치졸했다는 것도 다 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을 난 알고 싶지가 않다. 나의 것이 아닌 남의 사실에 난 나의 사실로써 맞서리라.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아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저급한 진실의 떼거리보다 내겐/ 우리를 솟아 올리는 단 하나의 거짓이 더 소중한기에.”<sup>42)</sup>

(...)

39) Ю. М. Лотман(1992) “Идейная структура Капитанской дочки,”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 II, Таллинн, с. 418.

40) Ungurianu(1998), p. 389.

41) Victor Shklovsky(1977) “In Defence of the Sociological Method,” in L. M. O’Toole & Ann Shukman(eds.) *Russian Poetics in Translation*, No. 4, p. 96.

42) 푸슈킨의 시 「영웅 Героя」(1830)에 나오는 구절. 이 시는 푸슈킨이 주장한 예술적 진실의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곤 한다.

역사가 짓밟아버린 푸가초프의 무의식적 욕구를 시로써 복권시키고, 푸슈킨의 손에 의해, 역사에 의해 단에서 끌어내려졌던 푸가초프를 다시 그 단 위로 올려 보내는 것. 해심 저 밑바닥에 떨어져버린 역사의 비열함에서 푸가초프를 전설의 드높은 단 위로 들어 올리는 것.

(...)

그리하여 푸슈킨은 시의 힘으로써 치졸한 중에서도 가장 치졸했던 한 인물을 더 없이 관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다.

『대위의 딸』에서 역사가-푸슈킨은 시인-푸슈킨에게 패배하고 말며, 푸가초프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한 마디는 영원히 그 시인의 편에서 있다.<sup>43)</sup>

단호한 선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사가-푸슈킨이 시인-푸슈킨 앞에서 패배하고 만다는 츠베타예바의 논지는 순전히 시인으로서 자신의 선험적(*a priori*) 확신에 의거한 것으로, 거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역사가 푸슈킨은 언제나 낭만주의자 푸슈킨을 패배시켰다”<sup>44)</sup>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 시인 푸슈킨은 “알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츠베타예바의 단정 또한, “알아도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비평가에게 가했던 푸슈킨의 반론을 상기해볼 때, “문학 비평에 의해 왜곡되는 역사”의 또 다른 실례로 비쳐지기조차 한다.<sup>45)</sup> 날카로운 분석력과 시적인 직관에도 불구하고, 시인과 역사가에 대한 과장된 대립상에 있어서만큼은 츠베타예바가 푸슈킨을 오독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sup>46)</sup> 그 오독의 가장 단적인 결과는 『대위의 딸』과 『푸가초프의 역사』 집필 시기의 선후 관계에 관한 혼동일 것이다.

츠베타예바는 푸슈킨이 푸가초프에 대한 역사를 먼저 쓴 다음, 그에 대한 시적 응수로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시를 역사의 절대적 우위에 상정해 놓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시가 역사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설정이야말로 츠베타예바가 전적으로 왜곡시킨 집필 역사에 불과하다. 『대위의 딸』이 『푸가초프

43) Марина Цветаева(1979) “Пушкин и Пугачев,” *Избранная проза в двух томах*, NY., т. 2, сс. 294-300.

44) “И историк всегда побеждал в Пушкине романтика.” Томашевский(1961), с. 194.

45) 「폴타바」의 역사성 비판에 대한 푸슈킨의 반론(“Опровержение на критику,” 1830)을 다시 한 번 참조할 것.

46) 물론 고의적인 오독이기가 쉽다. “오독이더라도 그렇게 읽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츠베타예바의 푸슈킨은, 관련 산문 모음집의 제목(Мой Пушкин)이 말해주듯, ‘그녀만의’ 푸슈킨이라 할 것이다.

의 역사』보다 뒤늦게 완성되고 발표된 건 사실이지만(각각 1836년과 1834년), 실제로 구상은 소설에서부터 출발되었고(1832년), 다만 애당초 소설의 보충 자료로서 표트르 대제에 관한 사료 검토와 함께 시작되었을 역사 연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설을 제치고 먼저 독립된 저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뿐이다.<sup>47)</sup>

츠베타예바의 확신과는 달리, 역사와 소설이 자신만의 일관된 푸가초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대한 푸가초프와 무자비한 푸가초프, 용맹한 푸가초프와 비겁한 푸가초프, 생각하는 푸가초프와 무모한 푸가초프 등, 상반된 그의 면모는 결코 소설과 역사, 그리고 시인과 역사가라는 이분법에 발맞추어 나뉘지지 않는다. 하나의 장르, 하나의 서술 주체 안에서도 푸가초프의 형상은 역동적이며, 다분히 상호모순적인 면을 지닌다. 푸가초프는 물론, 그 외 다른 인물들의 성격과 역할, 사건이 일어나는 시공간의 경계, 반란의 동기와 진행 과정, 우연과 섭리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일관성이나 명료한 원칙은 발견할 수가 없다. 한 마디로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의 기이한 얽힘(странное сцепле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sup>48)</sup> 속에서 매 순간 판단과 선택의 분기점에 처해야 하는 것은 역사와 소설 속의 인물들 모두이며, 작가인 푸슈킨과 독자인 우리 또한 그 면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노프 개인의 역사와 러시아의 역사, 소설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섭리와 우연의 작용 외에는 “상황의 기이한 얽힘”에 대해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역사 속의 푸슈킨 역시 푸가초프 난에 얽힌 인과의 과정을 일관되게 풀어나가지는 못한다.<sup>49)</sup> 로맨스의 틀을 빈 소설이 귀향한 주인공의 행복한 삶이라는 인위적 결말을 피할 수 없듯, 역사의 결말 또한 푸가초프의 처형, 그리고 푸가초프와 관련된 모든 기억의 공적 말살이라는 인위적인 법령의 실행과 맞물리게 되어 있다.

47) 『대위의 딸』의 집필 과정에 대해서는 Paul Debreczeny(1983) *Alexander Pushkin: Complete Prose Fiction*, Stanford, p. 526-7, 532과 같은 해에 씌어진 그의 다른 책 *The Other Pushkin*, Stanford, pp. 239-56 참조.

48) Пушкин, ПСС, т. 6, с. 312.

49) 서술의 앞부분에서는 푸가초프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면서 일견 역사적 필연성의 법칙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푸슈킨도, 난의 진압 과정에 이르러서는 이성적인 해석을 내리지 못한 채, 운과 섭리의 개입을 인정하게 된다.

끔찍한 시대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예카테리나 여왕은 난의 근원지였던 강의 옛 이름을 없앴다. 야이크 카자크는 우랄 카자크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들의 마을 또한 우랄로 개명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반란자의 이름은 그가 맹위를 떨쳤던 지역에서 아직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 민중은 ‘푸가초프 슈치나’(пугачевщина)라는 절묘한 이름을 통해 그 피비린내 나는 시절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정부가 지워버린 역사 대 민중이 다른 방식으로 지속시켜온 역사의 대비는 일찍이 「폴타바」의 에필로그가 보여줬던 기억의 층위를 재현하는 것이다. 「폴타바」의 시인-역사가가 그랬던 것과 같이, 푸가초프의 푸슈킨은 잊혀버린 기억들을 파고들어 삭제되고 억눌려 있던 사실을 최초로 되살려낸다.<sup>51)</sup> 그리고 푸슈킨의 역사 안에는, 비록 그것이 공식적인 제국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민중의 전설과 가설, 유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함께 한다.

미완성의 이 역사는 내가 중단한 작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정부가 발행한 푸가초프 관련 문서 전부와 외국인들이 푸가초프에 대해 기록한 것 중에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또한 몇 가지 다른 필사본 원고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생존자의 증언들도 활용했다.<sup>52)</sup>

사실성과 상상력, 또는 역사가로서의 과제와 시인으로서의 과제가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푸슈킨이 『대위의 딸』과 『푸가초프의 역사』를 동시에 집필한 것은 시와 역사를 분리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다면성을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만약 그럴만한 의도와 시간이 있었다면, 그의 “중단된 작업”은 이후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의 딸』과 『푸가초프의 역사』의 관계를 단순히 이분법적 세계 속에서의 “보완(complementarity)”<sup>53)</sup>이나 “장르간의 대화(intergeneric dialogue)”<sup>54)</sup>

50) Пушкин, ПСС, т. 8, с. 192.

51) “여태껏 한 번도 공개된 바 없는 푸가초프 문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문서 보관소에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보관되어져 있었다”고 푸슈킨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Пушкин, ПСС, т. 8, с. 109.

52) Пушкин, ПСС, т. 8, с. 109.

53) Evdokimova(1999), p. 11-5.

54) Wachtel(1994), pp. 66-87.

로 보는 것은 제한적인 해석일 수가 있다.

『푸가초프의 역사』는 발표 당시 브로네프스키(Броневский)란 역사가에 의해 ‘시적 허구성’(поэтические вымыслы)을 단점으로 지적받았다. 푸슈킨은 이에 대해 상세한 반론을 펼치면서 자신의 방대한 작업량과,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역사적 판단력’(историческая критика)을 자신 있게 역설한다.

나는 푸가초프에 대해 출판된 모든 것은 물론, 각종 필사본 원고와 칩령과 보고서 등이 묶인 두꺼운 폴리오를 18권이나 주의 깊게 통독했다. 나는 내가 다루고 있는 시기의 주요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답사하면서 살아 있는 증언을 통해 죽은 문서들을 검증해보는 한편, 노인이 된 증인들의 노쇠한 기억력을 나의 역사적 판단력으로 검증하고자 했다.<sup>55)</sup>

푸슈킨에게 있어 판단력은 역사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믿을만한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들의 진정한 인과 관계를 명료하고 재치 있게 서술”하게 만드는 역사적 판단력과 “연대기가 갖는 시적 신선함”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푸슈킨의 최종적인 진술이었다.<sup>56)</sup> ‘시적 허구성’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됐던 바로 그 측면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유추와 편집과 종합 과정이 요구했던 ‘역사적 판단력’의 이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푸슈킨의 반론에서, 그리고 그가 일관되게 생산해온 각종 역사물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제국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 시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시인의 상상력과 역사가의 판단력 등은 반드시 상호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카람진 의 뒤를 이어 ‘연대기작가’가 아닌 ‘역사가’로 인정받고자 했던 후기의 푸슈킨에게는 그렇다.<sup>57)</sup> 그것은 역사를 다루는 ‘시인’으로서의 푸

55) Пушкин, “Об Истории Пугачевского бунта”(1836), ПСС, т. 8, с. 274-5.

56) “오직 민중의 역사만이 민중의 진정한 요구를 말해줄 수 있다는 지당한 생각 끝에 코니스키(Кониский)는 그 중대한 일(『소러시아 역사』 저술)에 착수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판단력(критика)과 연대기가 갖는 시적 신선함을 한데 혼합해 놓았다. (...) ‘판단력’이란 믿을만한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들의 진정한 인과 관계를 명료하고 재치 있게 서술하는 능력을 말한다.” Пушки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Георгия Кониского Архиепископа Белорусского”(1836), т. 7, с. 230.

57) “Карамзин есть первый наш историк и последний летописец. Своею критикой он принадлежит истории, простодушием и апофегмами хронике. Критика его состоит в ученом сличении преданий в остроумном изыскании истины, в ясном и верном изо-

슈킨에게 있어서도 물론 동일한 진리였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시인-역사가’로서 그가 꿈꾸었던 ‘자유’의 본질이었을지 모른다. 민중 역사극에 대한 한 논고에서 그 자신이 단적으로 선언했듯 말이다.

작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철학, 냉철함, 역사가가 갖는 공적인 사고, 통찰력, 생생한 상상력, 편견이나 사심의 배제. 그리고 자유.<sup>58)</sup>

---

бражении событий.” Пушкин,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сочинение Николая Полевого” (1830), ПСС, т. 7, с. 94.

58) Пушкин의 «О народной драме и драме *Марфа Посадница*» 집필안(1830), ПСС, т. 7, с. 436 (원문 강조).

## 참고문헌

- Альтшуллер, Марк(1996) *Эпоха Вальтера Скотта в России*, СПб.
- Бетеа, Давид(1996) "Славянское дарение, поэт в истории и 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 Пушкина," *Автор и текст*, СПб., сс. 132-49.
- Вацуро, В.(1994) "Повести покойного Ивана Петровича Белкина," *Записки комментатора*, СПб., сс. 29-47.
- Гуковский, Г. А.(1957) *Пушкин и проблемы ре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иля*, М.
- Кибальник, С. А.(1998)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философия Пушкина*, СПб.
- Левкович, Л. Я.(1973) "Историческая повесть," Б. С. Мэйлах(ред.) *Русская повесть XIX в.: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атика жанра*, Л.
- Лотман, Ю. М.(1992) "Идейная структура Капитанской дочки,"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аллинн, том II, сс. 416-29.
- \_\_\_\_\_ (1983) *Роман А. С. Пушкина "Евгений Онегин": Комментарии*, Л.
- Макогоненко, Г. П.(1981) "Из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историзм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зм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конец XVIII-начало XIX в. (XVIII в., сб. 13)*, Л., сс. 3-65.
- Манн, Юрий(1993) "Вальтер Скотт в русском эстетическом сознании," *Проблема автор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жевск, сс. 196-206.
- Петров, С. М.(1953) *Исторический роман А. С. Пушкина*, М.
- Пушкин, А. С.(1977-1979)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Л.
- Рылеев, К. Ф.(1971)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й*, Л.
- Серман, И. З.(1971)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и композиция поэмы Полтава," *А. С. Пушкин. Статьи и материалы*, Горький.
- Сим, Джи Ен(2003) *Повесть А. С. Пушкина «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 движение истории и развитие характеров*, Дисс. канд. фил. наук, СПб.
- Тойбин, И. М.(1969) "Вопросы историзма и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Пушкина 1830-х годов," *Пушкин: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атериалы. 6*, Л., сс. 35-59.
- Томашевский, Б.(1961) "Историзм Пушкина," *Пушкин, М.-Л.*, II, сс. 154-99.
- Зйдельман, Н. Я.(1984) *Пушкин: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поэта*, М.

- Эткинд, Е. Н.(1999) "слева направо," *Божественный глагол: Пушкин, прочитанный в России и во Франции*, М., сс. 455-82.
- Цветаева, Марина(1979) *Избранная проза в двух томах*, NY.
- Byron(1986) J. J. McGann(ed.), Oxford.
- Coyle, Marin et als. eds.(1991) *Encyclopedia of Literature and Criticism*, London.
- Debreczeny, Paul(1983) *Alexander Pushkin: Complete Prose Fiction*, Stanford.  
 \_\_\_\_\_(1983) *The Other Pushkin*, Stanford.
- Dolinin, Alexander(1999) "Historicism or Providentialism? Pushkin's History of Pugachev in the Context of French Romantic Historiography," *Slavic Review*, Vol. 58, No. 2, pp. 291-308.
- Edwards, Paul et als. eds.(1967) *Encyclopedia of Philosophy*, NY.
- Emerson, Caryl(1986) *Boris Godunov: Transpositions of a Russian Theme*, Bloomington,
- Evdokimova, Svetlana(1999) *Pushkin's Historical Imagination*, New Haven.
- Gadamer, Hans-Georg(1988) *Truth and Method*, NY.
- Gossman, Lionel(1990)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Cambridge.
- Greenblatt, Stephen(2001) "Introduction to The Power of Forms in the English Renaissance," V. B. Leitch(ed.) *The Norton Anthology of Theory and Criticism*, NY.
- Greenleaf, Monika(1994) *Pushkin and Romantic Fashion*, Stanford.
- Hokanson, Katya(1994) "Literary Imperialism, 'Norodnost' and Pushkin's Invention of the Caucasus," *The Russian Review*, Vol. 53, No. 3, pp. 336-52.
- Lindenberger, H.(1990) *The History in Literature*, NY.
- Lukacs, Georg(1963) *The Historical Novel*, Boston.
- Richter, David H., ed.(1998) *The Critical Tradition: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Boston.
- Sandler, Stephanie(1989) *Distant Pleasures: Alexander Pushkin and the Writing of Exile*, Stanford.
- Shklovsky, Victor(1977) "In Defence of the Sociological Method," in L. M. O'Toole & Ann Shukman(eds.) *Russian Poetics in Translation*, No. 4.
- Striedter, Jurij(1977) "Poetic Genre and the Sense of History in Pushkin,"



- New Literary History*, Vol. 8, No. 2, pp. 295-309.
- Ungurianu, Dan(1998) "Fact and Fiction in the Romantic Historical Novel,"  
*Russian Review*, Vol. 57, No. 3, pp. 380-93.
- Wachtel, Andrew(1994) *An Obsession with History: Russian Writers Confront the Past*, Stanford.
- White, Hayden(1973)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Baltimore.

**Abstract****Poet and History:  
Reconsidering Pushkin's Historicism****Kim, Jean-Young**

It is not until the 1980-1990's that Pushkin's historicism finally becomes liberated from the Soviet stronghold of Marxist dialectics. The Soviet scholars, perhaps motivated by the social necessities of their own period, embraced Pushkin's historical awareness within the tendentious principle of realism, which led to a more or less rigid interpretation of his historical writings.

The advent of post-structuralism and new historicism in the Western scholarship as well as the political change in Russia itself brought a major modification to the monological frame of interpretation, as is well documented in recent revisionary readings of the poet's historical works. In this new trend of scholarship the previous attempts to view the poet's historicism as a form of realism are strongly challenged, and history in turn is reconsidered foremostly in terms of artistic 'discourse', not in terms of ideology or historical philosophy. As a result, imagination, poetics, mythmaking, and generic differentiation emerge as the immediate concerns in analyzing his treatment of historical topics.


In clear awareness of this change in Pushkin scholarship, and in agreement with the poststructuralist and new historicist outlook on the relativity of the so-called historical truth, this paper closely reads Pushkin's *Poltava*, *The Captain's Daughter*, and *The History of Pugachev* together with his critical articles, and reveals how Pushkin's pluralistic and rather subjective attitudes towards history as art is intertwined with his outwardly monological and objective pronouncement as an artist-turned-to-historian.

Although some of the recent studies tried to interpret the complexity in

Pushkin's historical writings in terms of 'dual truth', 'complementarity', or 'intergeneric dialogue', this study intends to overcome the limit of dualism, since Pushkin's role as 'poet-historian' does not necessarily bifurcate to those of the poet and the historian apart. On the contrary, the paper contends that historically critical mind and poetically liberating imagination of his, brought in one, gives birth to an all-encompassing vision and artistic power that endows all the contradicting elements and ideas with utmost 'freedom', which he himself pointed out as one prerequisite for a writer of historical dramas.

---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5. 10. 4
	논문심사일:	2005. 10. 26 ~2005. 11. 14
	심사완료일:	2005. 11. 22